

-2월 초 부터 3월 초까지 중*에 다녀왔습니다.-
2월 초에는 헤안시에서 청소년 수련회를 가졌습니다. 한국에서 함께 간 사역자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한 주제로 여러 강의와 공동체 훈련을 준비했습니다.



수련회를 마치며 자발적으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,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시간이었습니다. 그 중 웨이라는 친구의 간증입니다. 웨이는 선천적 척추 기형으로 태어나 버려진 아이였습니다. 교회 성도가 웨이를 데려다 키웠고 몇 년 전에는 상해에서 몇 개의 굵은 척추를 들어내고 골게 펴게 하는 대수술을 받았습니다. 그러나 16세의, 키도, 생김새도 초등학교생처럼 보이는 웨이는 줄곧 반항적이고 폐쇄적인 아이였습니다. 장애 때문인지, 꼬일대로 꼬여 부모와 누나에게 늘 상처를 주었던 웨이가 나와서 “하나님께 감사하다, 가족에게 감사한다”며 울었습니다. “하나님은 세번의 기적으로 저를 살리셨습니다.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척추 수술이 제겐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. 저는 RH-0형으로 헌혈자를 찾기도 어려웠는데 기적으로 저는 거의 출혈을 하지 않았습니다...” 수련회가 끝난 한참 후에도 이 친구는 계속 예수님 얘기를 담대히 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

이 외에도 수년간 교회를 싫어하고 세상을 쫓아가던 청년들 몇이 돌아오면서, 그들을 위해 오래 기도해왔던 교회 리더 형제 자매들에게 큰 위로가 있었습니다. 할렐루야...

안디옥 수련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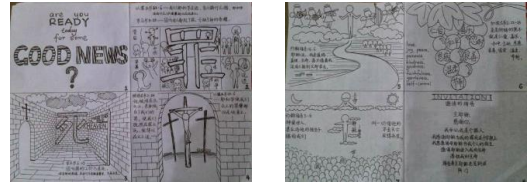
연이어 저희 친구들과 2박 3일의 수련회를 가까운 마을 삼자 교회에서 가졌습니다. 먼저 감사 드릴 것은, 이번 수련회 장소입니다. 늘 30여명이 함께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릴 장소를 찾기가 그곳에서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. 안전한 곳을 찾아 멀고 깊은 산속 팬션들을 찾아 다녀왔지만, 시간과 재정이 늘 큰 부담이었습니다.

이번의 장소는 1시간 가량 버스로 갈수 있고도 참 아늑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. 이 삼자교회의 젊은 목사님은 작고 오래된 교회에서 20여명이 모여 예배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짓게 되었는지 간증해주셨습니다.

너무 길어 다 나눌 순 없지만, 목사님의 꿈과 교인들의 헌신,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정부로부터 땅을 무상으로 받게 되고, 결국은 많은 분들의 헌금으로 빚 없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나선 주변의 모든 교회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전면 개방해 주셨고 기쁨으로 섬겨주셨습니다. 할렐루야!

전도지

그동안은 성경을 들고 나가서 전도를 했었는데, 얼마 전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와 함께 안디옥판 전도지를 만들었다고 하네요.



자신들이 이해한 복음을 재밌는 그림과 함께 창의적으로 만든 것이 신기하고 기특하네요. ^^

한국으로 유학와요~

안디옥의 전임 사역자 링링이 한국으로 한국어 공부와 한국 교회를 보고 싶어 유학을 옵니다. 아마도 6월 부터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 분명해진 생각은 아니지만, 전임 사역자로 살 친구들은 앞으로 적어도 일년 정도는 한국을 거쳐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이번에 만났을 때, 다들 신기하게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링링은 한국어 공부 후에 필요하다면, 선교훈련이나 신학을 한 후에 선교지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. 지금은 북*과 이슬람 국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.

전임사역자 세우기.

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안디옥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전임 사역자의 삶을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. 주님께서 제게도 보여주시고 본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한 후, 그 동안 마음에 두었거나, 새롭게 눈에 띄는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만나 도전했습니다.

처음 믿을 때부터 참 뜨거웠던 페이스는 다르게는 살 수 없을 거 같으며 울먹였습니다. 감동해서인지, 역울(?) 해서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ㅋㅋ

산이는 언제나 전임 사역자들을 부러워했습니다. 너무나 하고 싶은데 자신은 부족해서 안 될거라며 슬퍼했습니다. 제가 보기엔 훌륭한 친구입니다. ^^ 멜로디는 언제나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직장을 그만둘 준비가 되어있다고 명령만 하라고 했습니다. 대 여섯 명 가량이 전임 사역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. 할렐루야!

저는 6월에 다시 중*에 들어갑니다. 이 친구들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훈련방법과 도전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.

이 땅과 세계를 변화시킬 주님의 군사들로 준비되도록 기도해주시시오.